

韓國農業의 多肥施用傾向과 그 問題點

朴 餅 洪

(朝鮮大學校 法政大學・教授)

차 례

序 言

I. 多肥施用의 傾向

(1) 小農과 多肥施用傾向

(2) 韓國農業의 多肥施用傾向

II. 多肥施用의 原因

(1) 自然的 條件

(2) 社會經濟的 條件

III. 多肥施用과 그 問題點

序 言

韓國農業에 있어서의 肥料는 農業生産手段의 代表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그 購入費는 戶常農業經營費構成에 있어서 壓倒的인 首位를 占하고 있다. 肥料의 國內生産이 缺如되므로서 莫大한 外貨消費의 對象이 되어 왔다. 肥料는 그 自體 農業生産에 不可缺의 必須的 手段이 되고 있음은 再論할바 아니다. 더구나 耕地規模가 零細한 小農體制下에서는 加一屬 生産手段으로서의 그의 比重이 큰 것이다. 限定된 狹少한 耕地面積에서 可能的 限 最大限의 收穫을 올리려고 한데서 더욱 그러하다.

小農體制인 韓國農業도 例外가 될 수 없고 日帝의 韓國農業收奪以後 계속 多肥手段에 依存하여 온 것이다. 小農은 一般的으로 多肥施用하는 傾向이거니와 韓國農業이 왜 多肥施用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는가를 解明해보고자 한다.

韓國農業이 多肥農業이라는 事實은 어떠한 問題點을 惹起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그 問題가 發展해 갈 것인가를 아울러 指摘해 보려고 한다.

I. 多肥施用의 傾向

(1) 小農과 多肥施用傾向

小農은 本質的으로 限定된 狹少한 耕地面積에서 最大限의 多收穫을 目標로 多肥施用에 依存하는 傾向이다. 零細經營條件下에서는 農業增產策으로 들 수 있는 干拓, 開墾등에 따른 土地擴張, 土地改良事業의 推進, 品種改良 등을 비롯한 農業技術의 向上을 通하여 어느程度 成果를 期待할 수 있으나 比較的 많은 經費負擔과 長期間의 時日이 所要되므로 零細農民의 自體事業으로 推進하기에는 힘든 事業이다.

그러나 肥料의 增施에 의한 單位面積當의 增產方法이야말로 肥料를 適期에 供給하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比較的 短時日內에 小資本으로 所期の 目的이 達成된다. 따라서 肥料增施手段에 따른 農業生産高의 增大方法은 農民自體의 生産意慾에서 뿐만 아니라 政府當局에서도

적지 않은 政策의關心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小農이 主로 依存하고 있는 肥料은 그 供給過程에서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多肥使用으로 인한 農家經濟에 미치는 經濟的 條件을 비롯해서 化學肥料만의 偏施에서 惹起되는 土壤의 酸性化 등 보다 더 本質的이고 深刻한 問題가 派生된다는 事實은 度外視할 수 없는 問題라 하겠다.

韓國農業도 化學肥料의 多肥施用以前에는 自然的 自給肥料에 거의 依存하여 오던 것이 日本資本主義의 化學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資本家商品인 肥料은 過放한 農村侵透를 貫徹해왔고 더구나 肥料의 獨占價格에 따른 그 供給은 小農生産價格과의 많은 缺狀差로 因하여 農民은 계속 收奪되었다. 더구나 解放後에는 肥料의 國內生産이 杜絶되므로써 莫大한 外貨消費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農民은 肥料의 購買過程에서도 더욱 많은 出血을 强要당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肥料을 加一層 増投施用하는 傾向을 갖게 됐다.

化學肥料은 有機質肥料에 비해 作物成長에 速効性이 顯著하기는 하지마는 農民은 이와 같은 速効性에 도취되어 無原則한 化學肥料만의 偏施에 빠지고 있는 實情이다. 肥料施用의 不均衡은 土壤의 酸性化를 促進하여 土質을 衰退케할 뿐만 아니라 畝作의 경우 稻熱病 등을 誘發하는 등 그 副作用도 아랑곳없이 계속 多肥施用에 끌리고 있다. 이와같이 作物栽培의 滋養分으로서의 化學肥料도 어느 限界를 넘으면 他肥料成分과의 合理的 混合施用을 缺한 偏施는 害毒物로 化하고 만다. 이것이야말로 肥料가 지니고 있는 보다 더 本質的이며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小農은 限定的인 零細經營條件下에서 多肥使用을 選擇하게 된다. 그나마도 主로 窒素質肥料의 偏重施用에 호르고 있는 現實은 더욱 重大問題가 되고 있다. 왜 우리나라의 農民이 窒素質을 集中的으로 施用해 왔느냐의 問題는 肥料生産供給過程에서도 原因이 있으나 窒素質의 速効性에 끌려 「肥料」 하면 窒素質을 連想케 만들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傾向은 앞으로도 쉽사리 是正될 것 같지 않다. 즉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1955년의 窒素質施用量이 146,476%이던 것이 1958년에는 171,685%으로 增加하

〈表 1〉

金 肥 成 分 量 供 給 實 績

(單位: %)

	窒 素 質	磷 酸 質	加 里 質	計
1955	146,476 (100)	28,218 (100)	8,847 (100)	183,541 (100)
1956	158,699 (108.3)	53,781 (190.6)	8,116 (91.7)	220,596 (120.2)
1957	143,936 (98.3)	68,520 (242.8)	6,547 (74.0)	219,006 (119.3)
1958	171,685 (117.2)	66,758 (236.6)	5,019 (56.9)	243,462 (132.6)
1959	161,786 (110.5)	57,241 (202.9)	6,017 (68.0)	225,044 (122.6)
	(71.9)	(25.4)	(2.7)	(100)

資料: 農業年鑑, 1961年度の 統計에 의한.

고 있다. 1959년에는 前年度보다 若干 적은 161,786%으로서 1955년부터 1959년까지의 窒素質이 平均 71.9%에 비해 磷酸質은 25.4%, 加里質은 2.7%에 不過하다. 이와 같은 事實은 韓國農業이 速効性肥料인 窒素質肥料에 偏倒되고 있음을 立證하고 있다.

小農은 自己窮乏化의 激化에 쫓겨 다른 増産手段보다는 손쉬운 肥料을 増施하여 收穫을

<表 2>

헥타당 人造肥料施用成分量

(單位: kg)

			窒 (N)	素 磷 (P)	酸 加 (K)	里
美		國	2.1	5.6	2.2	
英	本	國	2.2	7.2	2.0	
佛	蘭	西	4.0	14.1	5.0	
獨		逸	13.9	16.7	26.2	
伊	太	利	3.8	19.3	1.9	
엔	마	크	8.7	20.2	5.5	
스	페	인	2.3	8.0	2.0	
베	루	기	19.3	34.5	20.5	
오	란	다	26.2	52.2	41.4	
日		本	36.2	23.6	9.3	

資料: 1926年度の 統計로서 大內力, 肥料의 經濟學, 3面に 의함.

더 내려고 하는 事實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表 2는 헥타당의 肥料施用量을 國際的으로 比較한 것이다. 美國과 英國에서와 같이 農業의 資本化가 達成된 先進國을 例外로 한다면 小農國은 一般的으로 多肥使用하는 趨勢를 表示하고 있다.

스페인, 덴마크등 小農國에서도 肥料施用量이 적다. 이것은 他小農國에서는 增產手段으로 肥料量을 加重하고 있는데 比하여 같은 小農國體制下에 있으면서도 肥料量을 相對的으로 적게하는 代身 肥料以外的 農業技術의 導入과 農業設備에 置重하므로써 小農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多肥體制를 脫皮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小農國에서 一般的으로 多肥施用하는 傾向은 漸漸 顯著해지고 있음을 본다. 다음 表 3은 1960~1961년에 걸쳐 1,000헥타당의 成分別 肥料施用量을 比較한 것이다. 美國과 같이 經營規模가 큰 나라에서는 農業經營은 粗放의인데 比하여 反對인 나라에서는 集約의임을 알 수

<表 3>

1,000헥타당 成分別 肥料施用量 (1960—1961)

(單位: %)

國	名	窒	素	磷	酸	加	里	合	計	헥타당人口
美	國	14.82	12.94	10.61	38.37	1.0				
英	國	63.33	58.36	61.60	183.29	7.2				
西	獨	72.34	76.25	117.66	266.31	6.5				
白	耳	105.90	93.70	160.71	360.31	9.7				
日	本	124.03	80.88	98.77	303.68	15.3				
韓	國	104.69	26.45	3.38	134.52	11.8				

資料: 產銀, 韓國의 産業(上) 1966年度.

있다. 單位面積當의 資本投資는 經營規模가 적을 수록 더 크다. 同表에서 보면 日本의 多肥施用의 事實이 뚜렷하거니와 우리나라는 아직도 日本보다 肥料를 적게 쓰고 있지마는 農業技術 特히 農業機械化의 促進으로 農地의 深耕法에 따라 多肥施用으로 因한 土壤의 酸性化는 어느程度 防止되고 있다.

表 4의 農地規模別資本集約度を 보면 耕地規模가 적을 수록 單位面積當의 資本投資의 資本

<表 4>

耕地規模別資本集約度

區 分	資 本 額	耕 地 面 積	資 本 集 約 度	反 當 肥 料 費
0.5町未滿	469	4.7	100	6.29
0.5~1町	790	8.0	99	5.32
1.0~2.0町	1,241	14.4	86	4.20
2.0町以上	1,773	23.3	76	3.34
全 國	798	8.8	90	4.89

資料：農業年鑑 1962年.

集約도가 높다. 肥料費의 構成을 보면 5反步未滿의 最零細農家에서는 629원인데 比하여 0.5~1.0町農家에서는 532원, 1.0~2.0町農家は 420원, 2.0町以上은 334원으로 돼 있다. 즉 耕地規模가 적을 수록 肥料費의 構成비가 크다.

資本의 集約도를 보면 5反步未滿이 100인데 比하여 0.5~1.0町이 99, 1.0~2.0町이 86, 2町以上이 76 이다.

<表 5>

耕地規模別農業經營費

(單位：圓)

區 分	全 國	0.5 町 步 未 滿	0.5~1.0 町 步	1.0~2.0 町 步	2.0 町步 以 上
種 苗 費	11,522 (8.5%)	7,827 (10.3%)	10,925 (8.9%)	16,727 (7.6%)	22,242 (6.7%)
肥 料 費	43,003 (31.6%)	29,581 (38.9%)	42,562 (34.7%)	60,608 (27.5%)	77,910 (23.3%)
勞 賃 費	36,419 (26.7%)	11,818 (15.5%)	27,650 (22.6%)	73,077 (33.2%)	125,774 (37.7%)
搗 精 費	12,842 (9.4%)	7,765 (10.2%)	11,874 (9.7%)	19,020 (8.6%)	31,569 (9.5%)
負 債 利 子	8,310 (6.1%)	6,130 (8.1%)	7,910 (6.5%)	11,668 (5.3%)	13,934 (4.2%)
其 他	24,083 (17.7%)	12,887 (17.0%)	21,677 (17.6%)	39,094 (17.8%)	62,397 (18.6%)
小 計	136,179 (100%)	76,008 (100%)	122,598 (100%)	220,174 (100%)	333,876 (100%)
在庫生産資材增加 計	△2,389	△608	△2,946	△3,234	△10,370
	133,792	75,400	119,652	216,940	323,456

資料：農業協同組合 1961年度, 農家經濟調查報告書의 統計에 의한.

이와 같은 現象은 表 5에서도 볼 수 있으며 農業經營費에서 肥料費가 가장 많고 그 比重이 높은 것을 본다. 同表에서 農業經營費를 種苗費, 肥料費, 勞賃費, 搗精費, 負債利子, 其他 등으로 區分하고 있다.

5反步未滿의 總農業經營費는 7,540원인데 肥料費가 2,958원으로 總費用의 38.9%를 占하고 있고, 0.5~1.0町은 各各 11,965원, 4,256원, 34.7%이며, 1.0~2.0町은 21,694원, 6,060원, 27.5%, 2町以上은 32,345원, 7,791원 23.3% 이다. 平均으로는 13,379원, 4,300원, 31.6%로서 肥料費가 如前히 耕地規模가 적을 수록 많다는 事實이다. 農業經營費中 勞賃費를 除外하고는 耕地規模가 적을 수록 肥料費는 勿論 種苗費, 搗精費, 負債利子, 其他할것 없이 그 費用의 構成비가 높다. 다시 말하면 經營規模가 적을 수록 資本投資의 集約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立證하고 있다. 肥料費 다음으로 比重이 큰 것이 勞賃이다. 그러나 勞賃費는 耕地規模가 적을 수록 他經營費와 같이 그 構成比率이 높은 것이 아니라 反對로 낮다는 點이다. 經營規模가 적으면 그럴 수록 雇傭勞動의 必要는 없고 家族勞動으로도 充分하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韓國農業은 그 經營規模의 零細性에서 多肥手段과 勞動集約의인 方法으로 遂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農業生産手段中 農器具, 機械등의 勞動手段은 極히 原始性을 脫皮치 못한 反面 肥料과 같은 勞動對象이 되고 있는 生産手段은 絶對의 地位에 있다. 要컨대 韓國農業은 多肥施用과 勞動集約의 經營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본다.

(2) 韓國農業의 多肥施用傾向

小農體制인 韓國農業은 日帝의 植民政策以後 多肥農業으로 急進의인 轉換을 했다. 이와 같은 傾向은 特別 解放後에 더욱 뚜렷해지고 있거니와 오늘날의 多肥施用은 그 前史에서는 無肥 또는 過少施肥狀態에 있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 李朝末葉以後 舊韓國時代의 肥料使用은 自然 乃至 自給肥料에 基盤을 두었으며 더구나 그나마도 充分한 施用量을 갖지 못한 채 不徹低한 肥料管理로 一貫해 왔었다. 그러나 日帝의 오랜 宿望이던 韓國侵略이 達成된 後부터는 즉 所謂 統監府政治의 實施과 때를 같이 하면서 부터는 韓國農業은 日本資本主義의 工業化의 原料 乃至 食糧供給地라는 새로운 使命感을 띠고 肥料는 農業增產策의 一環으로 積極的으로 獎勵되었다. 換言하면 韓國農民의 生活向上을 위한 農家所得增大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日本資本主義의 必要不可缺한 價值增殖場으로 再編成되었다.

日帝時의 肥料事情을 제대로 理解하려면 그들이 着手한 所謂 ‘土地調査事業’의 基本性格부터 把握해야 할 것 같다. 日帝는 當時의 韓國政府內에 量地衙門이라는 土地調査에 必要한 機關을 設置했다. 이 事業이 外觀上으로는 韓國政府의 自治事業인양 設想으나 實際에는 日本帝國主義의 韓國社會內에 있어서의 物質의 生産力 特別 土地生産力의 正確한 測定을 目標로 한 것이었다. 所謂 ‘保護政治’라는 美名下에 同事業은 1918년에 끝을 맺었다. 當時의 韓國社會內部에는 如斯한 事業을 推進할 만한 社會의 原動力이 缺如되고 있었다. 그러나 비록 外部의 壓力에 의하여 強要되기는 했으나 어느면에서는 즉 土地의 近代의 私有制度確立이라는 觀點에서는 日帝의 土地調査事業은 그런대로 一役이 되었다. 換言하면 「아세아」의 土地公有制度가 近代의 私有制度로 編成되는 契機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否認 못하리라. 그 當時의 肥料政策을 把握키 위하여 우선 農業政策의 基本이라 할 수 있는 ‘農業振興의 大眼目과 四大實施要綱’을 들어 알아 본다. 즉 ① 氣候 土質의 適否에 따라 適當한 作物을 栽培할 것, ② 在來作物의 品種을 改良할 것, ③ 新作物의 輸入과 그 普及, ④ 肥料의 增施, ⑤ 水利灌溉施設의 改善, ⑥ 未墾地의 利用擴大, ⑦ 家畜振興과 그 製品增殖圖謀, ⑧ 養蠶과 其他副業獎勵등이다. 그의 實施에 있어서는 ① 獎勵事項의 多元化禁止, ② 實行이 容易하고 費用이 적게드는 方法으로 할 것, ③ 그 效果를 確認할 것, ④ 實際의이고 具體的인 指導를 할 것.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比較的 多角的인 農業政策의 目標을 樹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中에서도 肥料의 增施라는 項目이 注目된다. 거의 無肥 또는 過少施肥狀態下에 있었던 韓國農業도 日帝의 侵略後부터는 政策의으로 多肥施用을 獎勵했다. 그러나 아무리 多肥施用을 政策의으로 서둘러도 當時의 農民들은 아직도 肥料에 대한 認識不足과 購入肥料의 경우 經濟的 負擔때문에 一時에 購入肥料中心의 多肥段階로 飛躍될 수는 없었다. 日本人 三井榮長은 그 當時의 韓國肥料政策을 統監設置以後 三段階로 區分하여 說明하고 있다. 즉 第1段階로 1918(大正7年)년까지는 自給肥料의 增產獎勵期, 第2段階로는 1919(大正8年)년부터 1926(大正15年)년까지는 金肥의 消極的 獎勵期 第3段階로는 1927(昭和2年)年以後로서 金肥의 積

極的獎勵期로 區分하였다. 自給肥料獎勵期인 第1段階에서는 果樹, 煙草, 棉花 등 特殊作物에 대해서만 例外的으로 金肥가 使用된 것에 不過하고 經濟的 負擔과 技術的인 面이 없는 自給肥料를 主로 獎勵하였다. 統監府의 金肥使用에 관한 指示로서 1918年 3월에 各道知事에게 發送한 公文이다. 이 때에 가서야 農民으로 하여금 金肥에 관한 認識과 經濟的 與件이 어느程度 金肥를 獎勵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바로 이것이 第2段階의 金肥의 消極的 獎勵期로 臨한 것이다. 그 當時의 肥料消費實績을 들어 보면 肥料가 얼마나 적게 施用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1936年의 金肥料消費額은 7,400萬원에 自給肥料見積額 11,150萬원을 합하면 18,550萬원으로서 自給肥料만 使用하고 있었던 1910年의 自給肥料見積額 660萬원에 對比하면 무려 30倍까지 增加하였다. 1936年이라고 하면 金肥使用이 아직도 少極的인 反面 自給肥料가 廣範하게 利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表 6에서 戶當肥料消費의 增加趨勢를 보자면

<表 6>

農家一戶當 肥料消費高

單位: 上行數量 (斤)
下行金額 (圓)

種 類	1910	1916	1921	1926	1931	1936
自給肥料	緣 肥	7,340 0.09	17,265 1.98	46,174 1.30	101,421 2.03	169,630 3.39
	堆 肥	2.84	263,582 5.40	399,142 8.32	1,889,664 28.34	2,212,007 33.05
	小 計	2.84	271,012 5.49	416,407 10.33	1,991,085 30.37	2,381,637 33.44
販賣肥料	動物質肥料	—	0,080 0.02	0,191 0.09	2,439 0.54	1,714 0.78
	植物質肥料	—	1,042 0.09	4,814 0.94	11,375 1.17	6,789 0.93
	礦物質肥料	—	0,054 0.01	0,544 0.01	13,712 3.84	45,536 16.91
肥料	調 合 肥 料	—	0,011 0.00	0,237 0.09	1,324 0.27	16,506 5.46
	稚 肥 料	—	—	—	0.381 0.01	0.005 0.00
	小 計	—	1,286 0.12	5,786 1.23	29,231 5.82	70,550 24.08
合 計	2.84	5.61	11.53	32.10	36.19	60.52

資料: 朝鮮農會, 農業發達史, 發達編 p.322.

1910年의 自給肥料만의 見積額이 不過 2圓48錢이던것이 1916年에는 自給肥料見積額이 5圓49錢으로 增加한 것외에도 金肥消費額 13錢이 加算되어 5圓61錢이 된다. 그 後 계속 肥料消費額이 增加하였거니와 特히 1936年에는 自給肥料見積額 33圓44錢에 購入肥料 24圓8錢을 합하여 60圓52錢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1910年의 肥料消費額의 21倍에 該當된다.

다음은 肥料獎勵의 第2段階인 1919~1926년까지를 보자. 第1段階에서는 自給肥料増産을 原則으로 하면서 僅少量의 購入肥料인 大豆, 大豆粕을 混合施用한 것에 不過하였다. 그러나 日本資本主義의 化學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日本本土에서는 이미 相當量의 化學肥料가 使用되고 있었으나 아직 韓國에서는 初期的 化學工業製品인 過磷酸石灰 등의 礦物質肥料가 많이 普及되었다. 表 6, 7를 보면 購入肥料인 植物質肥料인 大豆粕이 1931年의 價格低落을 除外하

<表 7>

肥 料 價 格 變 動

年 次	大豆粕(一玉當)		硫酸암모니아 (10貫當)		過 磷 酸 石 灰 (10貫當)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價 格	指 數
1917年 (大正6年)	圓 1. 67	100	圓 16. 43	100	圓 1. 78	100
1920年 (大正9年)	3. 48	198	14. 28	87	4. 61	259
1925年 (大正14年)	2. 68	152	8. 02	49	2. 00	112
1931年 (昭和6年)	1. 07	61	2. 85	17	1. 16	65
1936年 (昭和11年)	2. 13	121	3. 90	24	1. 42	80

資料：朝鮮農會，農業發達史，發達編 p.467.

<表 8>

物價指數를 가지고 修定한 肥料價格變動表

年 次	大 豆 粕		硫酸암모니아		過 磷 酸 石 灰	
	修正價格	指 數	修正價格	指 數	修正價格	指 數
1917年 (大正6年)	圓 1. 02	100	圓 9. 51	100	圓 1. 03	100
1920年 (大正9年)	3. 30	324	4. 68	49	1. 51	147
1925年 (大正14年)	1. 40	102	3. 10	33	0. 77	75
1931年 (昭和6年)	0. 74	73	1. 96	21	0. 80	78
1936年 (昭和11年)	1. 12	110	2. 05	22	0. 74	72

資料：朝鮮農會，農業發達史，發達編 p.467.

고서는 大體의으로 騰貴現象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對照의으로 硫酸암모니아와 過磷酸石灰등이 해가 갈 수록 價格이 低落되고 있다. 이와같이 大豆粕보다 化學肥料價格의 下落傾向은 農民에게 化學肥料의 보다 더 많은 利用을 政策的으로 助長하는데 目的이 있었던 것이며 肥料(化學)의 大量生産이 農民으로 하여금 化學肥料의 選擇을 可能케 했다.

다음은 肥料獎勵의 第3段階인 1927年부터는 金肥의 積極의 獎勵라는 政策的 背景下에 어떻게 肥料施用이 發展해 왔는가를 보자. 第2段階에서는 肥料工業이 日本資本主義가 아직도 原始的의 資本蓄積段階를 벗어나지 못한채 少資本과 低級한 技術로도 生産할 수 있는 硫酸암모니아 過磷酸石灰등을 生産하고 있었으나 獨占的의 段階로 접어 들어가면서 부터는 大量生産體制下에 硫酸 窒素質같은 高級化學肥料를 生産하게 되었다. 다음 表 9를 보면 當時의

<表 9>

肥 料 消 費 狀 況

(單位：噸)

年 度	魚 肥	大 豆 粕	其他 油 粕	石 炭 窒 素	硫 安
1912	92,726	566,025	159,863	5,000	91,193
1917	91,163	1,036,988	133,051	39,671	55,838
1922	68,625	1,385,288	165,013	101,700	167,738
1927	118,838	1,359,225	163,238	127,523	385,243
1932	233,519	813,983	123,265	177,632	618,125
1937	176,567	670,042	183,624	286,251	984,995

資料：大內力，肥料의 經濟學，p.82.

日本의 肥料生産의 地位가 有機質肥料에서 無機質인 硫安암모니아 乃之 石灰窒素등의 肥料로 變遷한 것을 알 수 있다.

日本資本主義가 獨占段階에 들어 가면서 工業生産의 規模가 擴大되어 日本의 三菱系의 11室은 1927년에는 韓國에도 進出하였다.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를 設立, 興南工場을 建設한 것이다. 興南工場은 1927년부터 稼動하여 處女生産으로 6,000噸을 生産한 것을 비롯하여, 1932년에는 一躍 400,000噸, 1938년에는 504,000噸, 1940년에는 1938年보다 좀 減少된 500,000噸의 生産實績을 냈다. 1932年の 肥料生産은 日本本土까지 合해서 960,000噸에 不過한것 中, 約 40%가 國內에서 生産되었던 것이다.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外에도 三陟開發株式會社의 石灰窒素肥料의 設立을 비롯 1940년에는 朝鮮化學의 順天工場의 操業開始, 日産化學의 過磷酸石灰工場등이 차례로 建設되었다. 1941년에는 朝鮮化學의 仁川過磷酸工場, 木浦의 明安石工場, 1945년에는 鹽化加里를 生産하는 등 國內生産도 次第 活氣를 띠게 되었다.

이처럼 活潑하게 肥料生産이 進行되고 있던 版局에서 解放과 더불어 그 樣相은 一變하게 되었다. 다음 表10은 戶當金肥消費實績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解放前과 解放後를 比較한 것이다. 解放後의 肥料消費가 解放前에 比하여 엄청나게 增大한 事實이다. 解放前의 1916年은

<表 10>

解放前과 解放後의 金肥消費高比較 (1)

(單位: 戶當)

解 放 前	解 放 後
年 代	年 代
重 量	重 量
1916年	1954年
5.8kg (1,286貫)	342kg
1921"	1955"
21.7" (5,786"	307"
1926"	1956"
65.8" (17,542"	386"
1931"	1957"
109.6" (29,231"	346"
1936"	1958"
264.6" (70,550"	378"
解放前의 資料는 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321~322面の「肥料消費高」調査表에 의하여 重量을 貫으로 表示된 것을 kg로 交替集計한 것임	
解放後의 資料는 農案協同組合農業年鑑 1961年度 21面に 의한	

<表 11>

解放前과 解放後의 金肥消費高比較 (2)

(單位: 反當)

解 放 前	解 放 後
年 代	年 代
重 量	重 量
1916年	1954年
0.3kg (0.075貫)	38.9kg
1921"	1955"
1.3" (0.347"	33.8"
1926"	1956"
3.9" (1,050"	42.3"
1931"	1957"
7.8" (1,809"	37.7"
1936"	1958"
16.4" (4,368"	42.2"

資料는 第16表와 同一한

戶當 5.8kg에 不過하던 것이 解放後인 1954년에는 342kg로 約 59倍로 늘어났으며 「朝室」興南工場建設로 國內生産이 最高水準에 達한 1936年の 戶當消費量이 264.6kg인데 比하여 解放後의 1958年の 그것은 378kg로서 解放後의 消費量이 增大하였다는 事實을 窺知할 수 있

다. 또 이것을 反常消費量으로 比較한다면 表 11과 같다. 解放前의 最高量을 나타내고 있는 1936年의 反常消費가 16.4kg인데 解放後인 1958年의 그것은 42.2kg 이다. 1958年의 肥料消費의 40%에도 미치지 못한 比率이다. 이처럼 解放後에는 解放前에 比하여 肥料消費가 顯著한 差를 볼 수 있다. 이것은 國內生産으로도 그 需要를 充足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解放前에 比하여 解放後에는 國內生産이 거의 杜絶되었던 實情에서 본다면 더욱 對照的인 것이라 하겠다. 表 12에서 보아도 우리나라의 肥料施用은 增加一路에 있음을 다시 한번 立證할 수 있다. 1960

〈表 12〉

肥 料 消 費 實 績 表

(單位:%)

年 代	窒 素 質	磷 酸 質	加 里 質	計
1955	127,741	28,218	8,847	164,806
1956	107,838	49,626	7,689	165,153
1957	107,343	56,916	6,547	170,806
1958	96,207	51,685	4,313	152,205
1959	85,860	43,868	4,020	133,748
1960	87,653	42,784	6,390	136,827
1961	210,867	80,788	16,839	308,494
1962	19,896	39,959	—	59,855
1963	191,729	94,371	20,995	307,095
1964	173,352	153,571	74,422	364,145
1965	217,925	123,489	51,684	393,098

産銀:韓國의 産業(上) 1966年.

年代에 와서 急速的으로 肥料消費量이 늘어나 1965년에는 成分重量으로 393%으로 1955년에 比해 138.5%나 大幅 增加하였다. 이와같은 事實은 5·16軍事政府以後 重農政策의 標榜下에 施肥量을 增大하여 온데에 그 原因이 있다고 본다.

肥料消費量이 急増하고 있는 原因은 單位面積當의 肥料投下量이 主로 增大된데 原因이 있

〈表 13〉

肥 料 需 給 計 劃 表

(單位:%)

年 代	需 要 量			生 産 量			過 不 足		
	窒 素	磷 酸	加 里	窒 素	磷 酸	加 里	窒 素	磷 酸	加 里
1967	328,345	216,591 (672,991)	128,055	378,000	120,800 (524,800)	44,000	49,655	-95,791 (-130,191)	-480,055
1968	337,106	227,142 (704,653)	140,405	378,000	130,800 (525,800)	44,000	40,894	-96,342 (-151,853)	-96,402
1969	347,066	237,214 (348,965)	154,657	378,000	103,800 (567,800)	59,000	30,934	-106,414 (-171,137)	-95,657
1970	353,466	238,518 (348,965)	156,981	378,000	103,800 (567,800)	59,000	24,534	-107,718 (-181,165)	-191,981
1971	361,065	243,699 (766,804)	162,040	378,000	130,800 (567,800)	59,000	16,935	-112,898 (-199,004)	-103,040
成分別 構成比	47.1	31.8	21.1	66.6	23.0	10.4	—	—	—

産銀:韓國의 産業(上) 1966年.

으면서 干拓 開墾등의 耕地擴張에도 一理있다 하겠다. 1955년에 比하여 1965年의 耕地面積은 13.1% 增加한데 比해서 單位面積當의 施肥量은 137%나 大幅 增大하였다. 이러한 單位面積當의 施肥量의 增大는 增產을 위한 施肥量增加가 主된 原因이 되겠으나 二毛作耕地的 擴大에도 基因한 것이라 본다. 二毛作耕地的 增加狀況을 보면 水稻作耕地的 總面積에 對한 二毛作畝의 比率이 1955年의 37.3%에서 1965年에는 45.2%로 增加하였다. 이와같은 多肥傾向은 耕作地가 限定되고 人口壓迫이 解消되지 않는 限 더욱 加重될 것으로 믿는다.

第2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期間의 肥料消費計劃에서 볼 수 있듯이(表 13) 目標年度의 化學肥料需給量은 成分重量으로 1965年보다 95.1%가 增加한 767%으로 推定하고 있다. 肥料의 三要素比도 窒素質의 偏重施用을 防止하려는 意圖下에 1965年에 窒素質 55.5% 磷酸質 31.4% 加里質 13.1%이었던 것이 그 構成比가 1971年에는 各各 47.1%, 31.8%, 21.1%로 變動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窒素質中心의 肥料施用을 脫皮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와같이 豫想需要量에 對하여 國內生産이 어느程度 可能한가를 보기로 한다. 現保有生産能力은 忠州 및 湖南肥料의 窒素質 87,000%, 三沙産業의 窒素質 約 4,000%, 京畿化學의 磷酸質 約 10,000% 都合 92,000%으로 1965年消費量의 23.4%에 不過하다. 그러나 現在 試動中인 第三, 第四肥料의 窒素質 144,000%, 磷酸質 100,000% 加里質 44,000%, 第五肥의 窒素質 152,000%과 그밖의 中小業體의 總生産能力은 1968年現在 378,000% 磷酸質 131,000% 加里質 59,000% 都合 568,000%에 達한다. 따라서 1971年에는 總生産能力이 總需要量의 74.0%에 지나지 않으므로 國內需要를 充足하기에는 아직 未達한다. 그러나 窒素質만은 4.7%나 超過한데 比해 磷酸質과 加里質은 各各 46.3%, 63.6%나 不足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農業은 多肥施用傾向에 따라 漸次 肥料消費量이 增加한 것을 알 수 있다. 狹少한 耕地面積과 耕地當 人口密度가 높은 나라에서는 單位面積當의 施肥量增大로 因하여 多肥施用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II. 多肥施用의 原因

韓國農業이 왜 多肥施用을 不可避하게 됐는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韓國農業이 多肥農業일 수 밖에 別道理가 없는 理由로서 첫째 自然的 條件과 둘째 韓國社會가 지니고 있는 特徵으로서의 社會經濟的 條件등 두가지側面에서 說明할 수 있다.

(1) 自然的 條件

韓國農業은 自然的 條件으로 보아 多肥施用이 要請된다고 본다.

첫째는 韓國의 土壤이 酸性土壤으로 多肥要件이 되고 있다. 特히 韓國의 農耕地의 土質이 花崗岩系, 片麻岩系, 噴火山系, 石灰岩系의 種類가 많으며 各地質系別土壤間에는 그 構成이 反作物의이며 그 成分構成에 따라 多肥要因이 된다고 한다. 大體로 보아 韓國의 土壤도 日本의 土壤보다는 肥沃도가 낮고 水稻作 其他 一年生 乃至 多年生産植物에는 比較的 有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大部分의 土壤에는 窒素質과 腐蝕土가 不足하며 磷酸分도 不足하다고 한다. 韓國의 土地는 酸도가 强하여 全耕作地의 50%가 酸性土壤이라고 하며 어떤 土壤學者는 74%가 酸性을 含有하고 있다고 主張한다는 것이다. 表 14는 우리나라의 土壤中에 窒素質含量이 얼마나 不足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으로 보아도 酸性土壤이 支配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韓國의 土壤이 酸性土壤이 많고 土質이 肥沃치 못하다는 事實은 韓國農業을 必然的으로 轉落케 하였다. 土壤의 窒素質不足을 補填하기 위해서는 特히 人工的 窒素肥料의 増施

要件이 되는 것은 當然하다 하겠다. 그런데 或者는 韓國의 土壤이 酸性土壤이 아니라 肥料을 많이 使用했기 때문에 酸性化가 促進된 結果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肥料을 아직 조금도 使用한 事實이 없는 新墾地의 土地가 왜그다지도 酸度가 강한 土壤인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日帝가 韓國의 所謂 ‘土地調査事業’을 일찌기 着手한 當時부터 土壤學者들로 하여금 韓國의 土壤調査가 同時에 實施되었거니와 이미 그때부터 韓國의 土壤은 酸性土壤이라고 規定하였던 것을 想起해 보면 알 수 있는 常識이 아닐까 한다.

둘째는 韓國은 自然災害가 甚하므로 多肥要件이 되고 있다. 自然災害가 甚하면 甚할 수록 土壤의 榮養分과 特히 施肥成分의 無効化 乃至 流失로 보더 많은 人工肥料의 増投條件이 된다. 參考로 災害回數를 李朝時代의 記錄에 따라 볼 것 같으면 旱害는 482年間に 89回, 水害는 492年間に 89回, 風害는 337年間に 18回나 發生하였다고 한다. 이 記錄이 얼마나 正確하냐는 且置하고라도 災害가 많다는데는 他意가 없으리라.

〈表 14〉

韓國對 其他國間の 土壤中窒素含量比較

國	別	窒 素 質	比 較
韓國	畚	0.15	40
	田	0.12	32
	(耕作地)	(0.14)	(38)
日	本	0.37	100
臺	灣	0.15	40
滿	洲	0.14	38
蒙	古	0.20	54
露	西 亞	0.34	92

資料：農業年鑑，1959年度 p. 60.

〈表 15〉

水 害 表

年	次	農 作 物 被 害	家 畜 被 害	計
1916		4,333,636	14,890	4,348,526
17		977,604	17,140	994,744
18		11,270,633	5,060	11,275,693
19		5,713,586	31,780	5,745,366
20		14,082,075	13,330	14,095,405
21		1,771,561	80	1,771,641
22		13,825,311	74,940	13,900,251
23		11,592,388	62,860	11,655,248
24		4,527,151	3,500	4,530,651
25		28,285,872	227,600	28,513,472
26		8,180,303	14,613	8,194,916
27		3,642,628	2,352	3,644,981
28		5,587,731	41,893	5,629,623
29		655,826	3,870	659,696
30		12,588,601	14,316	12,572,916
31		7,096,113	588	7,096,701
32		515,554	224	515,778
33		24,989,978	6,630	24,966,608
34		3,457,319	16,850	3,474,169
35		6,436,179	4,979	6,441,158

資料：朝鮮農令，農業發達史 發達編.

元來 韓國의 氣候는 그 地形이 亞細亞大陸의 東部に 突出하고 있는 半島로서 東經 124度 11分부터 130度66分23秒, 北緯 33度 6分40秒부터 43度36秒間에 位置하여 東쪽은 日本海와 西쪽은 黃海, 南쪽은 韓國海峽을 끼고 日本에 對峙, 三面이 바다에 둘러싸여 北쪽은 鴨綠江과 豆滿江에 連結 滿洲大陸으로 進出한 半島로 形成하고 있다. 그러므로 氣候上으로는 海洋 乃至 大陸의 兩面의 影響을 받아 特異한 大陸性氣候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冬節은 三寒四溫의 氣象인데다 夏節은 比較的 低氣壓의 影響으로 降雨期를 맞는다. 夏節에 集中的으로 내린 비는 洪水의 條件이 되고 이것이 結局 水害로 發展한다(表 15 參照). 總降雨量의 3分之2 以上이 夏節인 6, 7, 8月의 3個月間에 내리고 있으며 冬節의 降雨量은 總降雨量의 10分之 1로 未及된다. 集中的 降雨量과 山林의 裸體化는 水害를 더욱 助長한다. 뿐만 아니라 水利施設의 貧困性과 더불어 山林裸體現象은 旱害를 克服할 수 없는 狀態로 물고만다.

(2) 社會經濟的 條件

지금까지는 韓國農業의 多肥施用의 原因을 自然的 側面에서 考察하였다. 韓國農業의 多肥施用은 自然的 條件에서만 說明할 수는 없고 보다 더 큰 原因은 社會經濟的 條件에 있다. 즉 社會經濟的 條件도 보는 사람에 따라 區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다음의 세가지로 要約코자 한다. 첫째는 韓國農業의 穀作偏重과 家畜生産과의 連結性不足, 둘째는 自給肥料生産의 制限, 셋째는 化學工業製品인 肥料의 農村侵透이다. 그러면 차례로 이것을 좀 더 細論하기로 한다.

1) 韓國農業이 穀作偏重하고 家畜生産과의 連結性不足이 왜 多肥要因이 되는가.

다음 表 16은 業態別 農家戶數를 表示한 것이다. 穀作인 沓作과 田作에 從事하는 農家戶數가 全體農家の 90% 이상을 占한다. 穀作生産아닌 果樹, 蔬菜 特用作物 火田作物 畜産 養蠶에 從事하는 農家は 全體農家の 10% 未滿임을 알 수 있다.

<表 16>

業 態 別 農 家 戶 數 表

(單位:戶)

年度別	耕		種				畜 蠶		其 他	計
	沓 作	田 作	果樹	蔬 菜	特用作物	火田	畜産	養蠶		
1951	1,729,652	400,985	5,560	13,469	2,047	1,113	5,559	4,016	21,529	2,183,930
1952	1,773,133	409,024	5,329	12,410	1,993	1,920	8,697	6,114	14,942	2,233,562
1953	1,791,275	411,760	5,602	11,935	2,077	—	8,207	5,138	13,138	2,249,132

資料: 韓國產業銀行調查部, 韓國產業經濟 10年史, p.40.

이것은 단적으로 韓國農業이 얼마나 穀作인 米穀生産에 主로 依存하고 있는가를 말해 준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을 더욱 明白하게 立證하기 위하여 表 17의 農業收入의 種別明細表를 보자. 1957年의 農業收入會計는 48,486원이고 이것을 100으로 하면 82.6%에 該當되는 40,026원이 穀作收入이다. 1958년에는 若干 그 比率이 減少되기는 했으나 如前히 壓倒의 地位에 있음은 틀림없다. 家畜收入은 養蠶 養蜂까지를 합하여 總農業收入의 1.6%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家畜收入의 貧弱性은 表 18의 家畜實績表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要約컨대 韓國農業은 穀作生産에 偏重하고 있는 反面 家畜生産의 極端的 不振相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穀作偏重과 家畜生産不振이 왜 多肥施用의 要因이 된 것인가를 알아 보자. 穀作偏重生産은 同一한 農土에 禾本科作物만의 連作으로 穀作外의 他作物과의 輪作을 缺하게 된다.

<表 17>

農 業 收 入 的 種 別 明 細

(單位：戶當平均)

區 分	1 9 5 7		1 9 5 8	
	金 額 (圓)	(%)	金 額 (圓)	(%)
農 作 物 收 入	473, 107	97. 6	383, 159	89. 4
穀 作	400, 267	82. 6	290, 434	67. 8
薯 類	11, 672	2. 4	11, 126	2. 6
蔬 菜 類	29, 298	6. 0	46, 978	11. 0
榨 油 作 物	4, 859	1. 0	3, 905	0. 9
果 實 工 藝 作 物	4, 693	1. 0	9, 032	2. 1
其 他	22, 318	4. 6	21, 685	5. 1
農 作 物 以 外 收 入	11, 760	2. 4	45, 406	10. 6
畜 產・養 蠶・養 蜂	7, 599	1. 6	9, 116	2. 1
農 產 物 加 工	2, 565	0. 5	4, 910	1. 1
農 業 雜 收 入	1, 596	0. 3	31, 377	7. 3
農 業 收 入 合 計	484, 867	100. 0	428, 564	100. 0

資料：農業年鑑，1959年度版，p.220.

禾本科作物은 他作物에 비해 그 自體 多肥를 要하는 作物이다. 그리고 他作物과의 合理的 輪作缺如는 그것대로 계속 同一한 土壤分의 偏取로 因하여 地力을 더욱 衰退케 하므로 多肥 要因이 된다. 또 이것은 食用穀作만의 偏重生産으로 家畜飼料 栽培의 缺乏를 招來하여 家畜 生産을 不振케 하고 있다. 家畜生産이 그만큼 不振한다는 事實은 自給肥料인 廐肥의 派生肥料 生産의 制限으로 더욱 人工的 肥料의 多肥要因이 된다. 그러던 왜 韓國農業이 穀作偏重하고 家畜生産이 甚히 不振하느냐의 問題는 食生活의 傳統性등 여러가지 原因을 들어 說明할 수 있겠으나 耕地規模의 零細性에 큰 原因이 있다. 缺少한 耕地面積에서 우선 食糧自給生産이 最大의 關心事가 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러면 穀作偏重과 家畜生産과의 連結性不足이 왜 多肥要因이 되느냐에 대해서 몇가지로 區分하여 說明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禾本科作物인 穀作은 그 自體가 多肥要因이 될 뿐만 아니라 他作物과의 輪作缺如는 더욱 同一한 地力의 衰退를 強要하게 되어 地力消耗을 促進하여 또 하나의 多肥要因이 된다. 특히 禾本科作物로서의 稻作은 本質적으로 多肥를 要하고 더구나 窒素質肥料의 偏施를 要請한다. 窒素質肥料의 偏施는 加一層 土壤의 酸性化를 일으켜 結局 多肥手段에 맞게 한다.

둘째는 食用穀作에 偏重하므로 飼料作物栽培가 制限되어 家畜生産不振으로 廐肥自給肥料 生産이 阻止되어 人工肥料의 多肥要件이 된다. 家畜生産不振은 農家所得增大과 더불어 必要 不可缺한 肥料問題를 解決하는데 貢獻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家畜으로 부터 얻는 自給肥料야말로 化學肥料만의 偏施로 더욱 促進되는 土壤의 酸性化를 防止하고 土壤을 保全해 주는 絶對적인 貢獻을 한다. 그러므로 家畜生産의 振興은 바로 農民의 自活之策의 農家所得增大事業으로 肥料의 合理的 施用과 더불어 土壤의 保全上 꼭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食作物偏重으로 綠肥栽培가 阻止되어 人工肥料의 增施要因이 된다. 우리農民은 農地에 人間の 胃腸을 채우는 食用作物生産外에는 他作物을 作付한다는데는 別로 興味를 못 느낀다. 그것은 限定된 缺少한 耕地에서 國民의 主食이 되는 食用作物을 栽培해야 無難하

기 때문에 그렇다.

넷째는 他肥料 즉 家畜糞肥 등의 自給肥料과의 合理的 混合施用이 缺如된 化學肥料偏施는 그것 自體가 漸漸 多肥에 끌려 간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家畜으로 부터 얻는 糞肥 또는 綠肥栽培를 通하여 自給肥料供給이 制限되므로 化學肥料中心의 多肥를 不可避하게 한다. 化學肥料만의 偏施는 土壤의 酸性化를 자극하기 때문에 酸性化로 因한 土壤의 衰退는 施肥量의 増大로 카바하려는 것이 되므로 多肥에 의한 계속적인 耕作은 收穫減을 招來하게 된다.

이상으로 穀作偏重에 따른 家畜生産不振이 왜 多肥要因이 되느냐에 대해 알아 본 것이다. 그러면 다음은 韓國農業이 왜 穀作에 偏重되고 家畜生産이 그토록 不振하게 됐는가에 대하여 一考할 必要를 느낀다.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韓國農業이 世界的으로 類例가 없을만큼 農地所有規模가 적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經營規模가 零細하다는 事實이다. 限定된 狹少한 耕地에서 主食生産인 食用穀作外에는 他作物을 生産하는 것이 制限되므로 家畜飼養에 必要한 飼料作物의 生産등이 極度로 阻止된다. 이것을 몇가지로 區分하여 좀더 細論하기로 한다.

첫째는 經營規模가 零細하므로써 限定된 狹少한 耕地에서 作物을 生産할 겨를이 없고 오직 主食生産인 食用穀作生産에 置重해야 한다. 왜냐하면 韓國農民은 經營規模의 零細性으로 自給生産을 主로 하고 있다. 自己가 生産한 것이 自己의 生活에 直接利用될 수 있어야 할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自給生産된 穀作은 同時에 國民의 主食生産이기 때문에 그것을 商品化하는데도 容易하다. 바꾸어 말하면 國民의 主食生産인 米麥을 生産해야 自己生活에도 直接利用될 수 있고 또 그것을 商品化하는데도 有利하다. 우리農民이 生産한 農産物은 自己가 利用하고 남는 것을 商品化하고 있다고만은 볼 수 없다. 自給生産에도 充足될 수 없음에도 貨幣需要의 緊迫性에 쫓겨 隨時로 農産物의 商品化가 容易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穀作生産은 그 價格이 어찌되었던 간에 國民의 主食이기 때문에 그만큼 商品化는 容易하다 하겠다. 零細한 農地에서 自給 乃至 商品化에 適合한 穀作을 生産하는 것이 다른 것을 生産하는것 보다는 더 有益한 것이 된다. 따라서 家畜飼育에 必要한 飼料作物과 같은 것은 그 生産이 制限되어 結局 家畜生産의 不振으로 化하게 된다. 要컨대 韓國農業은 食用穀作외의 他作物, 例를 들면 飼料作物의 輪作이 缺如되어 家畜生産의 缺乏을 招來한다. 韓國農業은 그 經營規模가 零細하기 때문에 主農業生産이 一方으로는 自給自足的 基礎위에 自家食糧을 第一主義로 하면서 他方으로는 農村經濟도 現代資本主義體制인 貨幣經濟秩序의 一環속에 作用되고 있으므로 貨幣需要를 메꾸기 위한 商品化가 容易한 國民의 主食生産에 따르도록 된다. 換言하면 資本主義下에서는 農民生活도 商品經濟와 流通過程을 形成하게 되므로 農業生産도 自給生産을 하면서 隨時 商品化에 適應할 수 있는 것으로 集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諸穀課稅가 現物稅에서 食納化하고 그 外의 貨幣需要의 必要性으로 農産物도 貨幣와 交換할 수 있도록 商品化過程속에 끼여 들게 된다. 따라서 農産物生産은 언제든지 商品化가 可能한것을 選擇하기 마련이다. 그때 그때 商品化가 困難하다면가 農産物의 附加價値를 實現하는 飼料作物 乃至 綠肥栽培등은 資本의 回收期間이 길기 때문에 貧困한 農民經濟의 實情으로서는 選擇되기 힘들다. 限定된 狹少한 耕地面積에서는 短時日內에 可能한 限 많은 收穫을 올릴 수 있는 作物을 集中生産하게 된다. 이것이 韓國農業을 穀作偏重 特히 稻作中心으로 集中하게 한 原因이 된다. 家畜生産은 國民의 主食生産인 穀作生産에 比해 商品化過程에서 많은 不安이 介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生産이 不振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特히 家畜市場의 造成을 위해서는 一方의인 國際市場에만 恃靠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着實한 國內市場의 保護有成이 時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이라는 前提가 우선 提起되어야 할 間

〈表 18〉

家 畜 實 績 表

種 別	1905~1909 年 平 均	1944	1945	1946	1947	1948
畜 牛 (頭)	948, 927	886, 842	597, 085	608, 879	643, 030	684, 457
乳 牛 (頭)	1, 932	2, 296	1, 661	1, 001	—	867
馬 (頭)	35, 766	38, 601	34, 142	32, 615	34, 753	25, 596
豚 (頭)	597, 302	329, 084	195, 271	300, 086	520, 925	659, 112
兎 (頭)	121, 843	32, 810	18, 403	20, 543	44, 618	71, 220
緬 羊 (頭)	10, 415	8, 813	4, 095	2, 678	3, 450	1, 839
山 羊 (頭)	47, 510	32, 668	29, 361	35, 542	46, 160	48, 283
鷄 (首)	3, 053, 973	2, 067, 241	1, 516, 389	1, 850, 522	2, 077, 673	2, 441, 489
蜜 蜂 (箱子)	80, 389	40, 908	33, 890	36, 306	38, 157	47, 795
鶯 (首)	3, 766	2, 350	1, 748	1, 695	7, 602	13, 622

資料：韓國產業銀行 調查部, 韓國產業經濟 10年史, p.70.

題이나 食生活를 穀食에서 肉食으로 混合케 하는 새로운 運動도 뒤따라야 할 것만 같다.

둘째는 小農의 零細한 經營條件에서 얻는 收入으로서는 家畜, 特히 大型家畜의 購入이 困難하다는 點이다. 表 18에서 보면 5反步未滿農家所得이 粗收益 37,170원에서 農業經營費 7,540원을 控除한 純所得이 겨우 29,630원에 不過함을 본다.

勿論 嚴格히 따지면 本統計의 標本調査의 對象이 되지 않고 있는 많은 農家中에는 赤字農家도 적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事情은 더욱 深刻하다. 많은 赤字農家의 경우는 論外로 하고라도 여기서 보는 5反步未滿農家所得 29,630원으로서로는 소값이 비싼때의 仔牛一頭의 購入費도 못 된다. 仔牛一頭를 購入하는데도 黑字農家의 경우 적어도 二年以上の 資金蓄積이 따르지 않고서는 不可能하다. 農畜用으로 飼育할 仔牛의 購入도 어려운판에 하물며 高級家畜 特히 乳牛등을 購入하는 것은 그림의 떡格일 수 밖에 없다. 5反步未滿農家は 그만두고 그 以上の 農家에서도 제대로 大型家畜을 購入한다는 것은 至極히 困難한 課題이다. 이것이 家畜生産을 阻止하는 한 原因이 된다 하겠다.

〈表 19〉

耕 地 規 模 別 農 業 所 得

(單位：圓)

區 分	農業粗收益 (A)	農業經營費 (B)	農 業 所 得 (C)	所得率 (C/A)
0.5町步未滿	371, 708	75, 400	296, 308	79.7
0.5~1.0	595, 591	119, 652	415, 939	79.9
1.0~2.0	919, 083	216, 940	702, 143	76.4
2町步以上	1, 322, 417	323, 456	998, 961	75.5
全 國	611, 345	133, 792	477, 553	78.1

資料：農業協同組合中央會 調查部, 農家經濟調查報告書, 1961年版.

셋째로는 家畜生産이 役畜(農牛의 경우) 時間의 制限으로 家畜飼育을 困難케 한다. 다음 表 20은 小農經營下에서는 役畜時間이 極히 制限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農業經營에서 役畜時間은 農產物 및 肥料등의 運搬을 例外로 한다면 그 利用은 耕地의 耕耘에만 限定된다. 同表의 경우 農家平均役畜時間은 農外作業 14.39時間을 包含해서 겨우 117時間에 不過하다. 耕作規模別로 보면 5反步未滿農家 約 54時間(約 5日) 0.5~1町農家 約

<表 20>

耕地規模別 戶當畜力使役時間

區 分 耕地 規模別	營 農 作 業				農外作業	合 計	農中保有頭數	
	稻 作	麥 作	蔬 菜	其 他			仔 牛	成 牛
平 均	63.23	22.71	5.05	11.46	14.39	116.83	0.17	0.30
0.5町步未滿	29.66	13.11	2.13	5.19	3.65	53.75	0.17	0.13
0.5~1.0	55.90	21.88	4.28	8.10	8.36	98.52	0.17	0.28
1.0~2.0	110.77	35.23	9.36	23.51	33.72	212.60	0.15	0.53
2.0町步以上	172.47	51.22	14.54	31.03	53.81	323.07	0.17	0.75
平 均								
1 月	0.09	0.06	0.02	0.10	1.77	2.04	0.14	0.23
2	0.27	0.38	0.02	0.13	1.72	2.52	0.15	0.26
3	0.05	0.66	0.38	0.80	7.42	5.31	0.17	0.27
4	10.44	0.63	0.91	0.92	1.80	14.70	0.18	0.29
5	15.72	0.08	0.31	1.35	1.50	18.96	0.18	0.30
6	22.64	2.19	0.39	3.02	1.20	29.44	0.19	0.29
7	2.62	0.39	0.53	1.87	0.35	5.77	0.17	0.31
8	0.04	0.04	1.48	0.56	0.48	2.61	0.19	0.29
9	0.17	0.35	0.17	0.37	1.06	2.11	0.17	0.33
10	4.57	9.68	0.23	1.55	0.68	16.71	0.17	0.33
11	3.93	8.20	0.50	0.50	1.29	14.42	0.17	0.34
12	0.66	0.15	0.10	0.29	1.11	2.31	0.16	0.32

99時間(約 10日) 1.0~2.0町農家 213時間(約 21日), 2.0町以上農家 323時間(約 32日)에 不
過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經營規模가 零細한 農家에서는 役畜의 경우 使役時間의 制限으로
그 飼育이 不振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役牛가 아닌 肥肉牛 乃至 廐肥用으로 飼
育을 겸하면 또 몰라도 役牛로는 無意味하다.

넷째는 家畜生産不振은 그에 따른 施設費의 調達과 勞動力不足으로 더욱 深刻하게 된다.
家畜 特히 高級家畜飼育에는 購入費뿐만 아니라 相當한 施設이 必要하다. 施設費의 調達이
란 零細農家로서는 더욱 困難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高級家畜 또는 어느程度의 規模를
갖는 경우 副業으로서 自己勞動力만으로는 甚히 감당키 어려운 것이 되는 수도 있다. 얼핏
보기에는 農村過剩人口下에 있는 우리農村에는 勞動力이 남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實際
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小農은 機械化와 技術面에서 顯著하게 落後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
큼 勞動集約的 經營條件이 된다. 特히 狹少한 耕地面積에서 조금이라도 더 收穫을 내보겠다는
農民의 強烈한 意慾은 無限한 勞動投下를 前提로 한다. 그러므로 零細農家에서 어느 程度
家畜生産을 結合하려면 自己勞動만으로는 不足하다. 그렇다고 雇傭勞動으로 勞賃을 支拂한
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問題인 것이다. 왜냐하면 耕作收入으로서 生活維持가 可能하면
서 家畜飼育을 結合하기 위해 雇傭된 勞動力에 대해서 賃金을 支拂할 수 있다면 또 모르나
生活費의 絕對額이 不足한 零細한 農業經營下의 雇傭勞動은 企業經營에서 흔히 볼수 있는
剩餘價値가 제대로 實現되지 않으므로 自己勞動外의 雇傭勞動을 導入한다는 것은 充分히

考慮하여야 할 問題이다. 勿論 제대로 따지자면 零細農의 雇傭勞動이라고 剩餘價値를 實現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마는 零細經營의 不均衡을 補填하기 위해서 代充되므로 雇傭勞動이 產出した 剩餘價値는 價格面에 그대로 實現되지 못하고 난다.

다섯째로 零細經營條件下에서 家畜生産은 그 技術面등 여러가지 理由로서 그 生産이 不安全하다. 米麥生産은 自然災害를 어느程度 克服할 수 있는 限 그 生産이 安定된데 비해 家畜 特히 養鷄, 養豚등은 그 生産이 不安定하기 때문에 그 生産이 不振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家畜生産이 不振한 原因으로 市場의 不安을 들 수 있다. 5·16 軍事政府當時 記憶하는 일로서 홍콩에 돼지輸出을 目標로 돼지의 密屠殺禁正法까지 制定하여 돼지의 國內需要를 抑制하면서 까지 그 輸出을 獎勵한 事實이다. 홍콩에서 돼지가 되돌아오는 바람에 養豚業者들은 一時에 破産狀態에 빠졌던 것이다. 돼지가 쫓겨왔으면 國內需要를 이르는 對策이 응당 강구되어야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巡警들의 勞苦는 如前히 돼지를 잡아먹는 者만을 찾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년센스한 일인가 말이다. 國內市場의 保護育成없이 海外輸出에만 過剩意慾을 갖는 것은 매우 危險한 일이다. 外國에 많은 輸出을 해서 外貨獲得을 하자는 데는 他意가 있을理 없지마는 輸入國側의 事情도 제대로 모르는 性急한 나머지 도리어 國內市場만 유린되고마는 事例는 是正되어야 한다.

以上에서 韓國農業이 그 經營規模의 零細性으로 말미암아 穀作偏重에 맞고 家畜生産이 甚히 不振한 原因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보았다.

經營規模의 零細性이 穀作偏重을 不可避하게 한것은 이상에서 말한바이나 經營規模의 零細性이라는 經營內部的인 條件에서 뿐만 아니라 經營外部的인 條件에서도 적지 않게 原因이 있다. 그것을 차례로 들어 보기로 한다.

첫째는 韓國農業이 穀作偏重으로 化하게 된 原因으로서 食生活의 傳統을 들 수 있다. 經營規模의 零細性이 穀作生産을 強要하는 것이라는 點에서는 이미 論議되었거니와 國民의 食生活이 米麥中心의 穀食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더욱 穀作偏重을 招來한 것이다.

둘째는 韓國國民의 生活水準이 낮기 때문에 農業生産이 穀作偏重한 것이다. 우리나라 國民의 食生活의 榮養의 攝取되는 것이 아니라 量的으로 空腹을 채우는데 있다. 國民의 食生活이 거의 米麥中心의 食生活로 偏重하고 있다는 事實은 韓國農業을 穀作生産으로 치우치게 만들었다. 國民의 生活水準이 높아지면 主로 量的인 穀食生活에만 依存해 온 食生活을 止揚하고 좀 더 文化的인 食生活로 改善될 수 있다. 이러한 可能性에 대하여는 이미 英鎊法則으로 立證되고 있는 바와 같다. 文化的인 食生活이란 脂肪質과 蠶白質이 豊富한 榮養價있는 副食의 比重이 높은 肉類 牛乳 달걀 果實등을 많이 먹게 된다. 이와같은 榮養價 높은 副食物의 攝取는 많은 費用이 먹기 때문에 所得이 많은 高所得層外에는 延命조차 어려운 低所得層에서는 마치 畫餅之格으로만 여겨진다. 따라서 低所得層이 大部分인 우리나라에서는 食生活이 아무래도 空腹을 채우는 量食에 基盤을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農業生産도 穀作에 偏重하고 있다. 低所得層의 食生活이야 말로 榮養食이 될 수는 勿論 없고 一日三食의 素食을 메꾸어가는 것조차도 쉬운일이 못된다.

셋째는 政府의 7代政策이 直接間接으로 穀作生産 特히 稻作生産을 助長하였다. 그에 관한 代表的인 몇 가지 事實만을 들어 본다.

① 現物地代乃至租稅가 米穀으로 徵收되었다. 特히 高麗朝以後 李朝時代의 貢租政策은 米穀의 租稅制下에 더욱 發達하였다. 稻作農業을 唯一한 封建經濟의 基盤으로 삼고 그로부터 產出되는 剩餘를 現物인 米穀으로 徵收하여 財源으로 利用한 것이다. 土地의 近代의 私

有制度의 確立以後는 말할 것도 없고 土地의 公有制度下에서도 地代는 租稅와 本質의으로 다른 바 없이 徵收되었다. 國家를 代表하는 文武官僚, 忠臣, 碩儒등의 特權階級에 의하여 農民으로 부터 徵收하는 現物은 一方으로는 租稅이며 他方으로는 地代의 役割을 하였다. 農民으로 부터 收取하는 負擔中에는 現物地代 乃至 租稅로서의 米穀外에도 無制限의 勞動收取가 兼併되었음은 勿論이다. 이와같이 地代로서 租稅로서 徵收하는 所謂 '年貢米'는 韓國農業을 米穀中心으로 集中케 한 原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米穀이 現物貨幣로서 代表되어 온 歷史的 事實이다.

金屬貨幣가 널리 使用되기 前까지인 李朝末葉까지는 現物貨幣가 使用되었다. 現物貨幣라고 하면 米穀을 비롯한 粟, 希, 牛, 紙등을 一般的 等價形態로 한 現物貨幣가 利用되었다. 李朝末葉에 비로소 銅錢平常通貨(韓錢, 葉錢), 當百錢, 白銅貨등의 金屬貨幣로 代替되었다. 이와같이 米穀이 一種의 現物貨幣로 機能한 事實은 韓國農業을 더욱 稻作中心의 穀作農業으로 置重케 한 原因이 된다 하겠다.

③ 日本資本主義의 積極的인 米穀增産政策이다. 日帝는 本國의 工業化政策을 遂行하기 위해서 韓國에서 低廉한 食糧인 米穀을 增産해야만 했었다. 日帝가 韓國에서 米穀의 增産을 劃策한 것은 韓國農民의 所得増大를 통한 生活向上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自己들의 必要에서 였다. 따라서 韓國農業이 本國의 農業生産과 競合되는 경우는 韓國側을 抑制하는 한편 韓國農産物의 本國流入을 制止하는 策動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米穀增産만은 계속 增産政策으로 一貫해왔었다.

왜냐하면 工業化를 뒷받침하기 위한 低價食糧과 계속 遂行되는 戰爭課業을 위한 軍糧米의 確保가 至上目標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日帝가 一方으로는 工業化를 위한 食糧으로서 他方로서는 계속的인 軍糧米의 確保를 위한 米穀增産運動을 展開해 온 것이 直接間接으로 韓國農業을 米穀中心의 穀作農業으로 偏重케 한 原因이 된다 하겠다.

④ 解放後의 政策 또한 米穀增産에 힘써 온 事實이다. 解放後에도 日帝가 實踐해온 바와같이 계속 米穀增産政策을 그대로 繼承하고 있다. 財政安定計劃이라는 政策의 標榜下에 祖國近代化를 위한 工業化의 基盤을 低物價政策에 두고 農産物의 低價格으로 農民은 계속 收奪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食糧의 增産運動이 展開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食糧增産이라는 口號는 美國의 剩餘農産物導入이라는 安易한 前提때문에 名實相符한 것이 되지 못한 때도 없지 않았던 것도 事實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農業은 歷代政策의 基盤위에서 米穀增産運動을 벌여온 것이 韓國農業의 生産構造가 主로 米穀中心의 穀作으로 偏倒되어 온 것이다.

지금까지 說明한 것이 韓國農業의 多肥施用의 原因中 自然的 條件外에도 社會經濟的 條件中의 그의 첫째 原因으로 韓國農業의 穀作偏重과 家畜生産과의 連結性不足이 多肥要因이 된다는 것이었다.

2) 自給肥料生産制限이 人工의 肥料의 多肥要因이 된다.

日帝가 本格的으로 化學肥料를 供給하기 前까지만 하더라도 韓國의 肥料는 主로 自給肥料였다. 堆肥增産運動으로 山野의 綠草採取가 山林의 裸體化에 까지 作用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解放後 特히 近年에 와서 山林綠化運動이 本格的으로 展開되므로서 堆肥增産을 위한 山野의 綠草採取도 많은 制限을 받게 되었다. 堆肥用의 綠草는 單純한 草類의 採取에 限定되지 않고 幼木을 으레히 남벌하는 傾向이었다. 이와같이 山林綠化運動과 더불어 草類 特히 幼木採取禁止는 直接 間接으로 堆肥한 自給肥料生産을 制限하게 되므로서 人工의 多肥要因

이 된다. 뿐만 아니라 農民側에서도 이제는 化學肥料의 速効性에 도취되어 ‘肥料’ 하면 化學肥料를 連想케 되고 堆肥 등의 自給肥料에 대해서는 別로 興味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事實도 아울러 無視할 수 없는 化學肥料中心의 多肥要因이 된 것을 看過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化學肥料의 過敢한 農村侵透運動이 적지않게 多肥施用을 자극하게 됐다.

多肥施用은 農業內部的 條件에서만 促進되는 것이 아니고 農業外部的 條件에서도 크게 作用한다. 다시 말하면 化學肥料를 生産供給하는 過程에서 肥料가 더욱 많이 쓰이도록 直接間接으로 作用한다는 것이다. 企業生産으로 이루어진 肥料는 그 唯一한 販路를 農村에서 求하고 있다. 農民의 自發的인 需要에만 對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積極的인 肥料의 農村侵透가 肥料를 더욱 増施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것이다. 肥料는 供給하고 있는 企業家側에서 보면 確 有利한 企業이다. 肥料工業自體가 重化學工業에 屬하고 있기 때문에 戰時에는 軍需物資를 生産할 수 있는 轉換性이 많다. 日帝가 植民地인 이땅에 東洋의 規模의 興南工場을 建設했다는 것은 大陸으로 뻗어가기 위한 부릿지로서 評價하면서 부터 戰時에는 戰略物資를 生産했다는 事實을 想起하면 化學肥料工業의 二重構造가 理解되리라.

解放後에도 肥料의 國內需要에 應해야 할 絶對的 課業이기는 하지만은 他工業에 比해 基幹産業으로 크게 脚光받고 있는 裏面도 理解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多肥施用과 그 問題點

이상으로 韓國農業이 小農體制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多肥施用의 傾向을 뚜렷이 하고 있다는 事實과 더불어 왜 多肥施用을 不可避하게 됐느냐의 原因은 어느程度 明白해 졌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考察하려는 것은 韓國農業의 多肥施用傾向이 現實적으로 어떠한 問題를 惹起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深化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言反코자 한다.

첫째 韓國農業이 多肥施用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는 限 肥料의 供給過程에서 들 수 있는 問題로서 肥料의 國內生産不足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第二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에 따른 肥料需給計劃에서 充分한 說明이 加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以上 論評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다만 計劃대로 차질없이 들어맞는다 해도 目標年度인 1971年度에는 生産計劃量 568%는 需要量 767% 보다 199%이 不足되는 事實이다. 그나마도 窒素質肥料中心의 生産으로 1971年度에 가서 窒素質이 4.7% 生産超過된데 比해 磷酸質 46.3%, 加里質 63.6%나 不足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事實은 肥料増施傾向으로 보아 그 生産량이 不足된다는 것 外에도 지금까지 主로 窒素質爲主의 肥料偏施는 적지않게 物議를 惹起하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問題視된다 하겠다.

둘째 韓國農業의 持续的인 多肥施用傾向은 農業經營費中 肥料費의 加重으로 農家經濟를 甚히 惡化시킬 것이라는 點이다. 工業化的 推進에 따라 農業內部에도 多少 構造的 變動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豫想되기는 하나 加重하는 農村人口成長率에 비추어 본다면 經營의 零細化만은 쉽사리 解消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될 수록 限定된 狹少한 耕地에서 한알의 쌀이라도 더 生産해보겠다는 意慾으로 多肥施用에 나른 集約的 經營은 一貫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肥料施用의 増大는 農業經營費中에서 肥料費의 壓倒的 地位를 強化하여 加一層 農民負擔이 擴大될 것은 뻔하다. 더구나 一貫된 低穀價政策이 계속되고 있는 限 農產物과 肥料와의 不等價交換이 深化됨에 따라 農民負擔은 점점 더 擴大될 것이다.

셋째 韓國農業이 多肥施用을 強化하는 限 더욱 더 土壤의 酸性化가 促進될 것이라는 事實

이다. 더구나 前述한 바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肥料施用의 合理性의 缺如 즉 他肥料成分과의 混合施用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土壤의 酸性化의 強度는 더 클 것이 問題된다. 農業經營規模의 零細性을 脫皮하는 하나의 方法에서 協業化의 推進동을 생각할 수 있으나 協業化가 제대로 推進되지 못하는 경우 機械化는 實現되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勿論 企業化의 推進에서도 期待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農村實情으로는 企業化가 가장 合理的인 方法이 아닌 限 協業化로 어느程度의 零細經營의 弱點을 補完해야 한다. 協業化의 進展에 따라 機械類의 導入이 따르지 않는 限 多肥의 前提에서 必要不可缺한 耕地의 深耕은 영영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農地의 深耕이 不可能한 限 多肥施用으로 인한 土壤의 酸性化는 더욱 擴大될 것이라는 事實이다. 土壤의 酸性化를 深耕法으로 어느程度 防止할 수 있는 것과 같이 肥料의 家畜廐肥와의 混合施用은 土壤을 維持하는데 가장 理想的인 것이다. 日下 晩時之噴이기는 하지마는 畜産振興策이 論議되고 있음은 그런대로 多幸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 振興方法이 問題다. 畜産마저 企業家의 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淸釋然치 못한 것이다. 畜産은 本來 耕地의 限定性에 시들고 있는 우리農民의 農民所得을 增大하는데 貢獻해야 할 가장 適當한 事業이다. 農工間의 不均衡을 어떻게 是正하느냐가 現實的인 政策問題가 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農民의 唯一한 副業거리를 企業家에 넘긴다는 것은 都是 理解가 안 간다. 이상 累累히 言及한 바와 같이 畜産은 農家所得增大에서 뿐만 아니라 肥料問題를 解決하는 次元높은 關鍵임에 비추어 企業畜産보다는 農民生産으로 推進되기를 提言한다.

<Summary>

Fertilizer Use of the Korean Agriculture and Its Problems

by

Byung-Hong Park(Prof. of Economics,
Chosun Univ.)

This thesis inquires into the conditions where Korean farms tend to use too much fertilizer. Then, on the assumption, my arguments are as follows. The reality in which the small farms are giving too much fertilizer is to be analyzed.

In the first place, to explain the above mentioned in detail, a natural condition must be involved in one of those that stimulated to use much fertilizer in the Korean agriculture. Particularly, this must be account for on the basis of social or economical side.

A core of the arguments which are emphasized now, is to throw a lot of fertilizer increasingly, as a merchandise of the Japanese capitalism. As is stated, so far as the agriculture of Korea had to be explained as a small farm system, the fertilizer as an article is questioned how to bring with the agriculture on the supply process of it.

After emancipated from the Japanese, mis ruleie the manure is being imported from abroad in reality. For a manure which is to solve the trouble, the fertilizer must be supplied from the domestic production facilities which are building up for the need.

Nevertheless, there is not only much trouble to eliminate the gap, but a chain of subordinate problems at the same time.

Out of them, one of the original condition that manure has itself, seems unlikely to solve it easily.